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9호 부석사조사당



선묘의 섬

정숙

멀고도 높은 봉황산 큰 섬이시여
한 오백 년 잠 못 들어 눈먼 지팡이 나무
만다라 송이들 불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버팀목으로
무량수전 고드름 되어 땅으로 내려오시는 대사님
아직도 오케 깎아 녹여 내리고 계시는지요

어둠 속 길 찾지 못해 이리저리 발 뻗고 있는
어리석은 뿌리들에게
사람이 서로 다 섬이지만 물 밑으로 발등
지그시 눌러주고 있다며
굳은 하늘문 열어 주시려는

그 깊고 넓은 마음, 흰히 열려 있어도
어둠이 더 깊어 눈 뜬 장님인지라
더듬더듬 날마다 부석이 되는
한 여자

그윽한 그 눈빛 기루어
소지 몇 장 불사르고 있습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정숙 시인은... 경북 경산 출생. 1991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 시집 〈신처용가〉 〈위기의 꽃〉 등.

국내 최초, 핵 피해자 증언대 오른다

23~24일 합천 비핵·평화대회

세계 핵 피해자의 실태를 전하고 핵과
방사는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12 합천 비핵·평화대회'
가 3월 23~24일 합천군민예술회관, 합천
군민체육관에서 열린다.

행사는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사진)
과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가 주최하고
국내 원폭피해자단체, 원폭2세환우회 등
피해자 단체와 환경운동연합, 한일시민선
안실천협의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핵없
는세상을위한사회, 에너지정의행동 등
탈핵·평화·환경·여성·종교단체 등 30
개 단체가 참여·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초로 국내외 핵 피
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 피해의 실태를
증언한다. 이들은 태평양 마셜제도 비키니
섬,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 히로시마·나가
사키 핵 피해자들로 증언을 통해 핵무기
사용과 실험, 원전사고 및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폭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이다.

행사는 23일 오후 1시 합천군민예술회
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윤여준 평화의

집 원장(前 환경부장관)과 다카하시 데쓰
야 동경대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서경식 도쿄경제
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홍성담 화
가, 주영수 공동대표(인도주의 실천의사협
회)가 참여하는 '핵 현장 리포트 영상&
토크쇼'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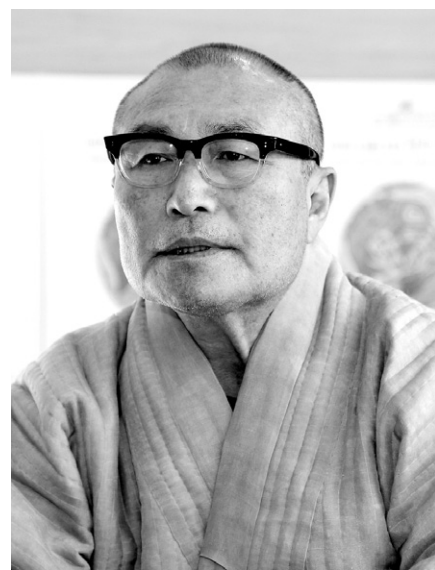
불교계 단체 주최로 국제행사

미국·소련 등 피폭자들 참여

증언대회·평화콘서트 외

설치미술전 퍼포먼스도 진행

24일 오전 9시부터는 합천원폭피해자복
지회관, 합천평화의 집 등에서 '피폭자와의
만남과 현지 필드워크'가 진행된다. 오후 1
시 30분부터는 합천군민예술회관에서 '세
계 핵 피해자 증언대회'가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는 합천군민체육관에서 가수 안치
환 백청강 합천평화씨알합창단 등이 참여
하는 '핵 없는 세상, 평화콘서트'가 열린다.



이와 함께 핵 피해의 심각성과 생명과 평
화의 절박함을 전하는 영상전과 사진전, 콘
서트, 설치미술전, 퍼포먼스와 안 평화콘서
트, 청소년 평화체험을 위한 야외 부대행사
등도 합천군 내 거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비핵·평화사진전에는 저명 사진작가인
네프쯔거(독일), 코다마 후사코(일본), 정
주하 백제예술대 교수가 출품했다. 또, 홍

성담·최병수 작가 등은 비핵퍼포먼스 설
치미술전을 선보인다.

이번 대회에는 서승 리츠메이칸대학 교
수, 서경식 동경경제대 교수 등 국내외 저
명인사와 일반인 등 1만여 명이 참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합천비핵·평화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지원 스님(위드아시아 이사장)은 "이번 행
사는 세계 각지의 핵 피해자들을 초청해
그 목소리를 듣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
가 될 것이다. 또, 실천적 노력을 구체화 하
기 위한 세계 핵 피해자와 함께 시민연대
교류의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
된 원폭으로 피폭당한 70만명 가운데 10%
인 7만명이 조선인이었다. 생존자 3만 명
중 2만3000명이 귀국했다. 이 가운데 70%
가 경남, 특히 합천 출신이 많았다. 때문에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고 있다.
한편,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범음·
박광서)는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1
주기를 맞아 탈핵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
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춘천 삼운사, 탈북자 강제송환철회 기원법회

지역생활 탈북자 등 200여 명 참석

국제적으로 탈북자 강제 복송 중단 요
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최초
로 관련 법회가 열렸다.

춘천 삼운사(주지 도웅)는 3월 7일 '열
반대제 맞이 탈북자 강제송환 철회기원법
회'를 봉행하고, 중국 정부에 구금돼 강제
복송되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법회는 최근 중국이 한국을 비롯
한 세계 각국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탈북동포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탈북자 강제송환 철회를 기원하고자 마련
됐다.

행사에는 춘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과 춘천사암연합회장 법선 스님
(춘천 부흥사)와 춘천사암연합회 총무 동
운 스님(춘천 지암사), 진철 스님(춘천 보
타사), 소지 스님(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
관장), 허천 제18대 국회의원, 조완구 춘
천소방서장, 차주전 강원서부하나센터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탈북자들을
위한 연등을 밝혔다.

삼운사 주지 도웅 스님은 기원사에서
"북한주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찾아 목숨
을 걸고 총알이 빗발치는 국경을 넘고 있
다.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이들이 대자대
비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자유를 누리
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원하자"고 발
원했다. 조동섭 기자

군부대 무단토지 점유 파악 나서

조계종, 조석희 교수 자문위원 위촉

조계종이 군부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찰토지 현황파악에 착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군부대 사
찰 점·사용토지 관련 자문위원에 조석희

강원대 교수를 위촉했다.

조계종은 향후 전문위원을 추가로 위촉
할 계획이다. 자문위원들은 현황 파악과
함께 국방부와의 중재에 나서게 된다.

조석희 선임 자문위원은 30여 년간 여
군으로 복무한 불자로, 지난해 중령으로
예편한 환경분야 전문가다. 조동섭 기자

승가대학도 사이버로 수업

필수교과목 e-러닝 동영상 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용)이 3월 1일 청
암사승가대학을 시작으로 전국 승가대학
을 대상으로 e-러닝 동영상 교육을 시작
했다.

동영상 강의는 개편교과에 따른 상주
교육교역자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
정 수준 이상의 전문강사 강의를 제공해

학인스님들의 학습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각 지방승가대학에서는 지도교
수스님 지도하에 조계종 디지털대학 홈페이지
(www.edubuddha.net/)로 접속하고
빔프로젝트를 활용해 강의를 듣는다.

특히, 수강이후 질의는 '질의·응답'란
에 올리면 강사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
뤄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했다.

조동섭 기자



불심으로 우승하겠습니다 "불교계 성원과 응원으로 LPGA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
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불자가 되겠습
니다." 세계여자골프(LPGA) 랭킹 2위 프로골퍼 최나연 선수가 3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을 예방했다. 최나연 선수는 매시할 때마다 가방에 단주를 넣고
다닐 만큼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최나연 선수에게 단주와 향로를
선물하며 "골프를 통해 인생을 배우고 국위선양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보살계산림' (Bosalgiesanlim) featuring a landscape image of a stone structure and text about Buddhist activities and donation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ongdosa and dates for the event.